



HOME    종합    종합일반

## 창원도시재생, 노인일자리 창출 '뽐박질'

마산시니어클럽과 협업...선도지역 청소·시민 불편 보완까지

2018년 03월 29일 (목) | /박혜린기자 | rin@gnynews.co.kr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산시니어클럽이 협업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매일 아침 8시가 조금 넘는 시각, 창동·오동동에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환경미화활동과 선도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영)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마산시니어클럽(관장 박영원)이 협업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도지역을 청소하고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해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도시재생사업 부분에서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리 방안'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부분을 보다 확대해 지역기관과의 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선도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다양한 활동영역 확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원서를 접수 받고 면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77명의 어르신들은 지난 15일 사업설명과 사전탐방에 참여해 활동지역을 둘러보고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인력에 대한 지원과 운영관리는 두 기관이 협업해 운영 중에 있다.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은 "처음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걱정돼 망설이기도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로 인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사업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사업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기에 노인일자리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마무리 돼가는 만큼 운영관리와 지속가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혜린기자 rin@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쇄하기